◉ 협회,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서 수여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22일,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등 4개 기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이번 지정서 수여식은 지난 7월말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뒤 기관별 조직 등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전담 M&A지원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공식 출범을 알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청 정영태 차장이 4개 기관에 수여를 맡았다. 이로써 협회를 포함한 4개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에서 각종 상담, 교육, 정보제공, 기업진단 및 매도기업과 매수기업의 발굴·연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게 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협회는 이미 수십여 건의 M&A 성공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벤처기업 M&A를 지원할 예정이다. www.mnair.c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올해만 3,050억 원 규모의 M&A 전용펀드를 결성 중에 있어 M&A 시장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벤처기업계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책간담회 가져

– '중견기업법 제정 검토' 밝혀

중소기업계는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법 신설을 비롯해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009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 재정 지원 확대 등 업계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특히 서승모 협회장은 "내년 3월부터 매출 1,500억 원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 각종 혜택이 사라져 더 큰 성장세를 이어갈 기업들이 정체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홀로서기가 어려운 중견기업들을 육성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중견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관련법 제정 검토를 약속했다. 정몽준 대표는 간담회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기업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이 보호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공정한 질서가 확보된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측에서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허태열·박순자·송광호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이 참석하였으며, 중기벤처기업인들로는 협회 서승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 벤처 · 이노비즈 업계 – 기술보증기금 간담회 가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벤처 · 이노비즈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회 및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한승호, 이하 이노비즈협회)의 회장 및 임원들을 초빙하여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벤처 · 이노비즈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및 이노비즈협회 임원들은 △보증관련 대출금리와 보증료 인하, △보증 심사 시 기술력 비중의 상향 조정,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감축 시 업체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업무처리, △정책자금의 one-stop처리 확대 등 업계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벤처기업협회 서승모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 이노비즈협회 한승호 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기보에서는 진병화 이사장과 기술금융부문 담당 김용환 이사, 창업평가부문 담당 이기원 이사가 참석했다.

기보 진병화 이사장은 "우수기술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벤처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기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지식 기반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기업과 기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협회, 2009년도 하반기 채용 수요조사 발표

– 하반기 채용시장 중소 · 벤처기업 86.16% 채용계획 있어

– 협회, 중소벤처기업 특화 온라인채용네트워크 V-JOB 운영

협회에서 ㈜구인구직닷컴과 함께 실시한 9월 한 달간 "2009년도 하반기 채용 수요조사"에 참여한 중소 · 벤처기업 50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16%가 '채용계획이 있다' 고 응답했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하반기 채용 예정율이 나이무관(63.32%)을 제외하고 22.67%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미취업자라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 ·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청년 층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반기 채용계획 및 규모를 확정지은 425개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업수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46.0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경기(27.78%), 인천(5.16%), 충북(4.17%), 충남(3.57%), 기타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가 0.4%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분야가 30.68%, 영업분야 21.19%, 서비스분야 21.02%로 영업과 서비스 직종의 기업에서 하반기 채용계획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채용계획 예정 직업군 중 IT업종 계열 직종이 140건, 사무/행정 관련 직종이 11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회에서는 핵심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 벤처기업의 채용을 돕기 위하여 온라인 채용네트워크 V-JOB(www.v-job.or.kr)을 운영하고 있다. V-JOB은 중소 · 벤처기업 위주의 채용정보와 콘텐츠로 구성된 벤처 전문구인구직사이트이다. 특히 다수의 정부 취업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희망자와 중소 · 벤처 기업의 취업연결을 도와주고 있다.